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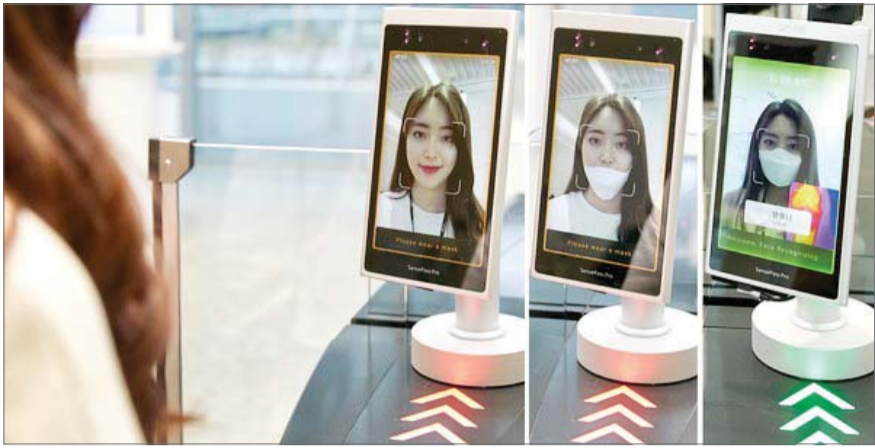


[뉴스] 나주 vs 오창 방사광가속기 오늘 최종부지 선정 02



Economy

코스피	1928.61 (-0.15)	코스닥	668.17 (+9.77)
금리 (2년)	0.948 (-0.012)	환율 (원/달러)	1225.00 (+2.90) (7일)



LG CNS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마곡 본사 출입게이트에 도입한 'AI 얼굴인식 출입통제서비스' 활용 모습. /LG CNS

원격의료·안면인식 등 AI, 언택트시대 총아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라

6 인공지능

'언택트' 사회적 공감대 확산 콜센터 '챗봇' 병원 '원격진료' 기업 '안면인식 출입 통제' 등 AI기술 활용 비대면 산업 부상

코로나19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챗봇 도입 문의 폭증, 영상진단·안면인식 AI 급부상

7일 AI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3월부터 콜센터에서 사람이 하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AI 챗봇 도입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챗봇 수요가 급증한 것은 서울 구로의 콜센터에서 98명이 확진받는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탓이 크다. 기존에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비대면 선호 현상으로 사람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됐다.

AI 전문기업 아크릴 관계자는 "최근 챗봇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시범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챗봇 등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한 언택트 비즈니스의 중장기적인 필요성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면서 챗봇에 대한 사업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크릴은 AI 챗봇이 앞으로 챗봇과



서울대병원 문경 인제원 생활치료센터에서 방사선사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루닛

컨택센터의 마케팅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의료 AI 기술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AI 의료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에 기여하기 위해 수 초 만에 흉부 엑스레이 분석을 끝낼 수 있는 폐질환 진단 AI 솔루션을 무료로 공개했으며, 원격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뷰노·루닛·디에스랩글로벌 등은 코로나 사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나 폐CT 영상 진단 솔루션을 무상 공개했다. 그동안 의료 AI 진단 보조 솔루션은 국내에서 의료 수가를 적용받지 못해 널리 활용되지 못했지만 이번 무상 제공으로 의료 현장에 확산되는 계기가 돼 향후 도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도보건소·대구파티마병원은 뷰노로부터 도입한 체스트 엑스레이 솔루션을 코로나19 선별 과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의 좋은문화병원·좋은삼선병원·좋은강안병원이 2차 종합병원 최초로 루닛에서 AI 의료영상검출 보조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또 지난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화상 상담으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도 국내에 도입됐고, 원격진료에 AI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언택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그동안 불법이던 원격의료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예로 들며,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해, 10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회사에 출입할 때 출입카드를 태그할 필요 없이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AI 안면인식 기술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LG CNS는 중국의 대표 안면인식 AI 기업인 센스타임과 손잡고 '얼굴인식 출입 통제 솔루션'을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위치한 본사 출입게이트 26곳에 도입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고용보험 사각' 93만명 150만원씩 지원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

<월 50만원씩 3개월>

2차 비상경제회의

5월은 경제회복 위한 골든타임 포스트 코로나 대응정책 총동원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추진

정부가 5월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정책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등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와 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

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에 드는 재원은 1조5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한국판 뉴딜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과 개념 확연히 달라"

홍 부총리는 이날 또 다른 회의의 안건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선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



중기부, 스타벅스와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스타벅스 성수역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타벅스가 함께하는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전창열 청년창업네트워킹프리지 대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박영선 장관,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손진영 기자 son@

상생, 협력, 동반성장, 자금지원...

코로나 고통 나누는 '착한기업' 전성시대

'코로나19'의 파도 속에서 약자를 위해 상생, 협력, 동반성장, 자금 지원에 나선 '착한기업'들이 더욱 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홈쇼핑은 중소기업자들에게 3년간 총 608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마트24는 경영애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중소기업자들을 위해 2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소진공),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등 유관기관에 따라

면 중기부는 이날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스타벅스)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서울 성수역점, 이대R점, 더종로R점, 약수역점 등 서울을 비롯해 인천, 천안, 대구, 대전, 광주, 부산에 있는 총 10곳을 '창업카페'로 지정, 청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기획 및 운영 등은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즈미, 인재 멘토링 등은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가 담당한다.

스타벅스는 또 성수동에 있는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커피 등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 예비

창업 우수인재들을 스타벅스 본사 등 미국 연수 초청 프로그램에 쓰기로 했다. 연간 100명 인력의 재창업 소상공인들을 모집해 교육하는 바리스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청년 신설법 인수가 지난해 3만개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혁신기반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